

직업관련 특성이 여성의 음주소비에 미친 영향

김명순* · 김광기**

*가천길대학 간호과, 인제대학교 음주연구소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음주연구소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최근 들어 여성 음주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 음주자 비율(연령보정)은 23.6%(1989년), 22.2%(1992년), 15.3%(1995년), 32.7%(1998년), 32.1%(2001)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성 음주자는 남성 음주자에 비해 절대적 숫자에서는 아직 적은 편이지만 음주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광기, 2002). 또한 여성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음주로 인한 폐해가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크다는 측면에서 여성음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보건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음주는 모든 여성집단에서 동일하게 양

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특정 여성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Haavio-Mannila, 1991; Shore, 1992).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음주를 더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스트레스 감소이론(stress-reduction hypothesis)을 들 수 있다(Greenberg et al., 1995; Ragland & Ames, 1996).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은 직장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Lennon, 1987; 1994)나 가정과 직장업무에서 오는 역할과부하(role overload)에 따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하거나 직장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의 증가로 음주할 기회에 많이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다(Parker et al., 1992). 이와 같

교신저자: 김광기

부산광역시 진구 개금동 633-165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음주연구소

전화번호: 051-890-6654, E-mail: hcmkimkk@ijnc.inje.ac.kr

은 연구에 반해 직장생활 때문에 문제음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음주자가 될 위험은 적다는 연구도 있다(Wilsnack & Wilsnack, 1997). 즉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더 느끼거나 직장여성은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가 더 높기 때문에 문제음주자가 될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Cooper et al., 1990). 이와 같은 상반된 연구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직장의 특성이나 담당하는 작업의 성격 등과 같은 직업관련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열악한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 성차별(Lennon, 1987; Roman et al., 2002), 낮은 자율성,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 부족(Greenberg et al., 1995)등에서 비롯되는 직무관련스트레스, 음주기회에 대한 참석빈도(Shore et al., 1992; Blum et al., 1997; Frone, 1999), 근무시간(Shore, 1992; Blum et al., 1997), 직업의 종류와 지위(Shore, 1992; Roxburgh, 1996; Plant, 1997),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성별구조(Kraft et al., 1993; Lennon, 1987)에 따라 여성음주행동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 관련 특성 변수들이 여성음주행동에 미치는 경로는 직접적이기보다는 음주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믿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Greenberg et al., 1995). 이처럼 직장여성의 음주행동양상을 이해하려면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뿐만 아니라 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여성음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음주에 대한 연구가 양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연구내용, 연구대

상 및 분석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초보적 단계에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에 대한 심리적 동기 및 태도, 문화적 믿음 등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인 연구 수준이며 연구대상도 알콜중독자와 같은 임상 인구 위주이며(이길홍 등, 1987; 이성립 등, 2002),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류경희, 1998; 신행우, 1998; 김영란, 1999; 박종순, 2000; 조희, 2000; 최은진, 2001; 천성수 등, 2001; 최명숙 등, 2002)는 있으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이다(정승은, 2001). 더욱이 직업관련 특성요인이 여성 음주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노력은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성 음주자 비율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장 여성의 음주행동양상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특별히 직장여성의 음주행동과 음주관련문제 경험에 직업관련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여성의 음주 행동양상을 기술한다. 2) 직장여성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한다. 3) 직업특성이 직장여성의 음주행동과 음주관련문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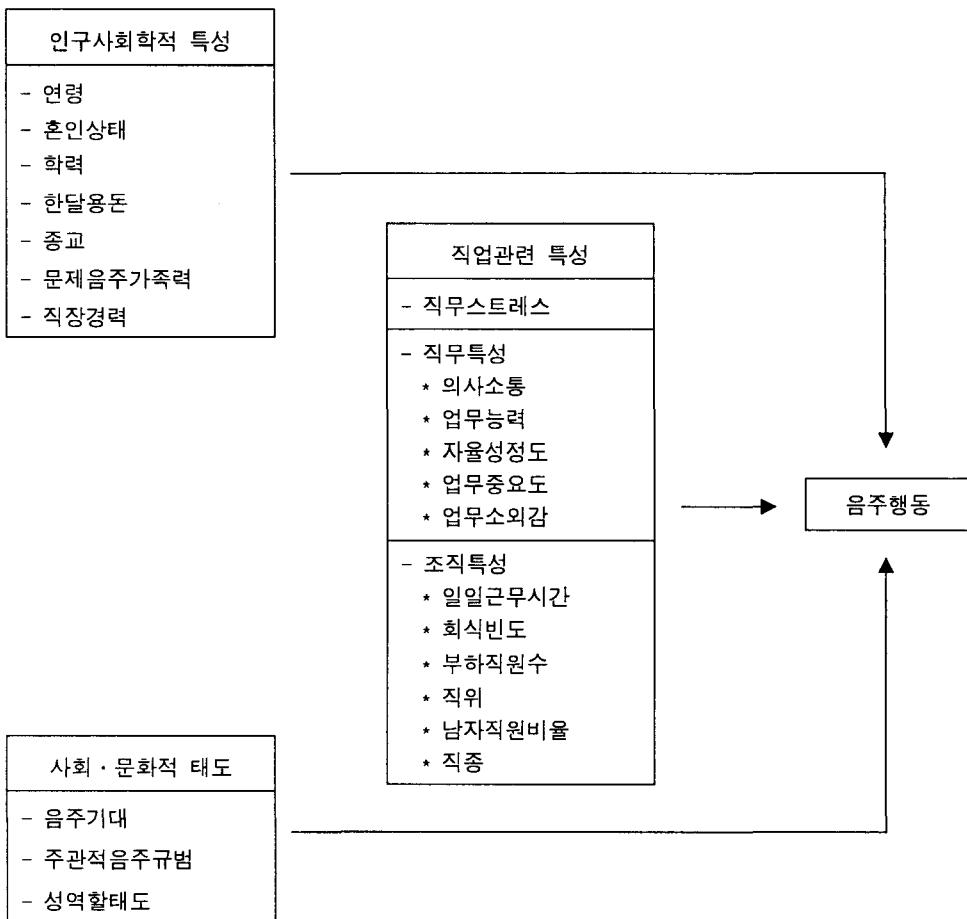
II.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직장여성의 음주행동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 직업과 관련된 조직적 차원 및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요인들을 고려하고 이런 틀 속에서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경우, 직업관련특성이 직장여성의 음주행동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에는 직무스트레스, 직무특성, 직장의 조직 특성을 포함하는 직업관련특성이 포함되었고 종속변수는 음주행동이며 이들간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여성의 음주행동은 다르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음주자와 과음자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자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혼인상태에 따른 음주행동은 기혼보다는 미혼이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그림 1> 연구의 틀

다(보건사회연구원, 1999; 제갈 정, 2001; 신명식, 2002). 이는 사회적 유대감 정도(Wilsnack & Wilsnack, 1997)나 사회활동의 차이(Shore et al., 1992)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기혼 여성보다는 이혼 또는 사별과 같은 문제를 가진 여성이 가정문제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를 자주 한다는 보고(Seeman et al., 1988)도 있다. 학력에 따른 음주행동의 변화는 학력수준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수준에 비해 음주를 더 하는 것으로 보고(제갈 정, 2001) 되고 있다. 여성음주가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술을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용자원의 증가 탓이라는(Wilsnack & Wilsnack, 1997) 의미에서 용돈이 중요 결정요인으로 여겨진다. 종교를 가진 여성은 다른 여성들과 다른 음주양상을 보인다(김영란, 1999). 기독교를 가진 여성의 경우 음주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가 음주비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이외에 음주행동을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적 소인이다(Stewart et al., 1997; NIAAA, 2000). 문제음주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문제음주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¹⁾.

직업관련특성은 직장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인 직무스트레스, 조직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조직유효성을 측정하는 직무특성, 조직의 형식적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직특성을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스트레스감소이론(Cappell et al., 1987; Kenneth, 1987; Cooper et al., 1990)에 의하면 음주는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음주빈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업무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소외, 상사나 동료들과의 갈등여부, 업무추진에 대한 자율성의 정도 등에서 비롯되는 직무특성은 음주유발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Seeman et al., 1988; 김훈, 1995; Greenberg et al., 1995). 업무수행과 관련된 요인 외에도 근로자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직의 형식적인 특성들이 있다. 즉 근무시간이 짧으면 음주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음주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지며 회식빈도가 많을수록 음주빈도는 증가할 것이다(Blum et al., 1997; NIAAA, 1999). 통제할 부하직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부하직원을 가지지 않은 경우보다 음주상황에 더 자주 노출되며 직위가 높을수록 음주를 많이 하게 된다(Wilsnack & Wilsnack, 1997). 여성 CEO나 기관장과 같은 최고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직장여성에 비해 음주기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xburgh, 1996; Plant, 1997). 남자들이 지배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여성은 남자동료들과 경쟁하기 위해 남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음주를 하게되는 반면 여성이 지배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장에 비해 음주기회가 적기 때문에 (Shore et al., 1992; Blum et al., 1997) 직장에서의 남자 직원비율이 직장여성의 음주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Kraft et al., 1993; 김광기, 2002).

사회·문화적 태도에 포함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서 음주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특성과 성 역할태도 이다. 음주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특성에는 음주기대와 주관적 음주규범이 포함

0) 이러한 가능성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가족이나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전적 소인이 영향력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음주 가족력을 가진 여성이 문제음주자가 된다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다.

되었다. 음주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음주할 가능성이 높다(류경희, 1998; Lindman et al., 2000; 조희, 2000). 또한 합리적 행동론에 의하면, 주관적 규범이 건강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Fishbein & Ajzen, 1980; 최정명, 2000). 음주를 하는 여성이 많다고 판단할수록 음주할 가능성이 많게 될 것이다. 이는 성 역할태도 와도 관련이 된다. 전통적인 성 역할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를 하는 것은 “여성다움”을 상실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던 직장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여성의 대부분이 음주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음주를 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전통적인 성 역할태도가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하는 도덕적 문화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잃게되는 소위 “도덕해체(moral breakdown)”가 생기게 된다. 개방적인 성 역할태도를 지닌 여성이 알코올소비가 높으며 음주로 인한 문제도 더 경험할 가능성이 많다(Parker et al., 1992).

본 연구에 포함된 종속변수는 월간 총 음주량이다. 이는 음주량과 음주빈도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동안 소비한 총 음주량을 계산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Clark et al., 1991).

2. 변수의 측정

인구사회학적 변수이외의 변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문제음주가족력에 대한 측정은 친가나 외가 가족 중에 알코올중독자와 같은 문제음주자가 있는 지 여부를 각각 질문하여 이를 다시 총합척도(summated scale)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양가모두 없는 경우에는 ‘0점’, 양가중 한쪽 가족에게서만 있는 경우는 ‘1점’ 그리고 양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2점’으로

측정하였다.

직무관련 스트레스는 이용식(1997)이 개발한 6문항의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각 문항별로 4점 “항상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된 것으로 총합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높은 편이었다(Cronbach's Alpha=.84).

직무특성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측정도구(이용식, 1997)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요인으로 축소하였다. 이들 요인에는 의사소통, 업무능력, 자율성정도, 업무중요도, 업무소외감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측정방식으로 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높은 편이었다(Cronbach's Alpha=.81). 직장의 조직특성변수에는 일일근무시간, 회식빈도, 부하 직원수, 직위, 남자직원비율, 직종 등이 포함되었다.

음주기대는 음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긍정적 기대감과 부정적 기대감의 총합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이는 Rohsenow(1983)가 개발한 음주효과 측정 설문지(Alcohol Effects Questionnaire)를 Cooper등(1990)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이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5 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해 긍정적 기대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음주규범은 주변의 다른 직장여성들이 음주를 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정명(2000)이 사용한 도구를 연구자가 음주행동에 맞게 수정, 보완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이었다. 성역할태도는 응답자가 가진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나 아니면 전통적이나를 측정하려는 것으로 Parker등(1992)이 제안한 성역할태도 측정문항과 한국인의 여성에 대한 태도 측정(이혜성, 1989)을 참고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81).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음주규범과 성역할태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와 4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음주자의 정의는 지난 한달 동안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지로 하였다. 음주행동은 월간 총 음주량으로 측정하였다. 음주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WHO, 2000). 음주횟수와 마시는 양(quantity)을 동시에 고려하는 QF(Quantity-Frequency)방법은 일정기간 동안의 빈도를 질문하고 술 마시는 날 보통 마시는 양(usual quantity)을 측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마신 양을 계산한다. 두 번째는 QF를 확장한 것으로 GQF(Graduated Quantity-Frequency) 방법이 있다. 이는 마시는 양을 미리 수준별로 계층화한 후, 각각에 대하여 마신 횟수를 질문하는 방식이다. QF방법이 이따금씩 있을 수 있는 과음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것에 비해 GQF는 이러한 것을 감안하는 것이며 높은 위험 음주자(high risk drinker)를 과소평가하지 않거나 비음주자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다른 측정도구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측정도구는 평소 일주일 동안에 마신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GQF방법에 의해 지난 한달간 총 음주량을 잔 단위로 측정하였다²⁾. 술에

함유된 알코올의 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마신 술의 종류에 따라 마신 량을 별도로 기억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잔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김광기 등, 2001). 술의 종류에 따라 흔히 사용되는 잔의 크기가 다르지만 한 잔에 포함된 순수 알코올량은 잔의 크기에 관계없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이 방법이 선호된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모집단은 2001년 매일경제신문이 발행한 『업체DB』에 수록된 5인 이상 사업장 중 서울지역에 위치한 175개 업체에 근무하는 20세 이상 성인여성으로 하였다.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층화비례할당표본추출법(stratified proportional quota sampling method)을 통해 표본을 구성하였다³⁾. 표본을 구성하고 있는 응답자의 직종과 업종 분포는 전국 직업 분포와 유사하도록 함으로써 비확률표본추출이지만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업종과 직종에 따라 비례층화 할당법을 적용하여 최초로 선정된 표본은 1,150명이었으나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150명이 제외되고 최종표본에는 1,000명이 포함되었다. 2002년 8월16일부터 9월19일까지 표본으로 선정된 1,150명에 대하여 각 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하였으며, 방문 일에 직접면접이 곤란했던 대상자는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하거나 전화면접을 실시하였다.

2) 자세한 측정방법은 김광기 등(2001) 연구를 참고할 것

3) 표본추출에 관한 자세한 것은 김명순(2003)의 연구를 참고할 것.

Ⅲ. 연구결과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는 20대가 가장 많았고(35.1%) 기혼의(59.3%) 고졸자가(46.8%) 지배적이었다. 11-50만원정도의 용돈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64.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교는

41.7%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문제음주가족력은 양가 모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87.9%) 친가나 외가 중 한쪽만 있는 경우, 9.2%를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의 12.1%가 가족 중에 알코올중독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장 경력은 1년-5년 미만이 36.8%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조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일일근무시간은 8시간이 41.9%이었고 회식빈도는 년 1-2회가 25.6%로 가장 많았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응답자 분포와 월간 총 음주량 비교

N=1,000

특 성	분 류	비율(%)	음주량 평균(잔/월)	F
연령	20-29세	35.1	62.6	14.77***
	30-39세	31.2	30.9	
	40-49세	21.8	27.6	
	50세 이상	11.9	29.2	
혼인상태	미혼	38.3	60.0	18.79***
	기혼	59.3	30.0	
	기타(사별,이혼,별거)	2.4	22.9	
학력	중졸이하	11.8	42.7	3.21*
	고졸	46.8	49.7	
	전문대졸	14.1	45.8	
	대졸이상	27.3	31.1	
종교	없다	41.7	43.0	0.15
	기독교	31.0	43.9	
	천주교	10.4	39.5	
	불교	16.9	45.9	
문제음주 가족력	친가(외가)만 있음	9.2	53.2	1.61
	양가 모두 있음	2.9	22.6	
	양가 모두 없음	87.9	42.8	
직장경력	1년 미만	6.2	42.7	3.06*
	1년- 5년 미만	36.8	53.9	
	5년-10년 미만	26.6	36.4	
	10년-15년 미만	17.2	37.8	
	15년 이상	13.2	31.3	

주) * p<0.05 *** p<0.001

<표 2> 직장의 조직특성별 분포와 월간 총 음주량 비교

N=1,000

특 성	분 류	비율(%)	음주량 평균(잔/월)	F
일일근무시간	8시간 이하	41.9	38.2	3.32*
	9시간-10시간	41.2	43.1	
	11시간이상	11.9	58.8	
회식빈도	1-2회/년	25.6	32.4	2.05
	1-2회/6개월	17.5	40.3	
	1-2회/3개월	18.9	52.3	
	2-3회/3개월	12.2	51.0	
	1회이상/월	22.7	41.3	
부하 직원수	없음	66.7	43.6	0.73
	5명 미만	19.8	44.8	
	5명-10명	6.1	29.4	
	11명-50명	5.4	53.3	
직위	51명 이상	2.0	36.3	0.71
	임시직평사원	20.1	37.1	
	정규직평사원	62.1	44.9	
	간부사원	17.8	44.4	
남자직원비율	20%미만	29.1	38.3	1.62
	20-80%미만	61.9	46.8	
	80%이상	9.0	35.4	
직종	전문관리직	50.6	42.7	0.27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9		
	전문가	13.4		
	사무직원	35.3		
	비전문기술직	49.4	44.1	
	기술공 및 준 전문가	7.5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10.8		
	시장판매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8.2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13.3		
단순노무근로직	9.6			

주) * p<0.05

부하직원 수는 5명 미만이 19.8%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직위는 62.1%가 정규직 평사원이었다. 한편, 남자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미만인 경우는 여성우위직업으로, 80%이상은 남성우위 직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성우위직업은 전체의 9% 수준이었고, 여성우위 직업은 29.1%이었다. 직종별 분포는 사무직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관리직이(50.6%) 비전문기술직보다 약간 많았다.

응답자의 직무특성에 관한 요인 중(<표 3> 참조), 자율성정도의 평균평점이 3.11점으로 가장 높았고, 업무능력 2.90점, 업무중요도, 의사소

통이 각각 2.85점, 업무소외감이 2.58점이었다. 대체로 본 연구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자신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여기며 업무소외감은 적게 인식하며 업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음주기대의 평균평점은 1.41점으로 음주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음주규범은 음주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음주규범은 4점

<표 3> 응답자의 직무관련 및 사회·문화적 특성과 음주행동특성

측정변수	평균평점	표준편차
직무스트레스 ¹⁾	2.68	.519
직무특성 ²⁾		
의사소통	2.85	.582
업무능력	2.90	.754
자율성정도	3.11	.519
업무중요도	2.85	.671
업무소외감	2.58	.602
사회문화적 특성		
음주기대 ³⁾	1.41	.307
주관적 음주규범 ⁴⁾	3.15	.635
성역할태도 ⁵⁾	2.86	.479
음주행동		
월간 총 음주량(잔)	43.6	67.3
일일 평균 음주량(잔) ⁶⁾	1.44	2.22
일회 음주 시 평균 순수 알코올소비량(gm) ⁷⁾	36.7	27.5

주 1) 4=항상 그렇다, 3=가끔 그렇다, 2=별로 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 4=매우 그렇다, 3=대체로 그런 편이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전혀 아니다
 3) 1=아니다, 2=그렇다
 4) 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
 5)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런편이다, 3=대체로 그렇지 않다, 4=전혀 아니다
 6) 월간총음주량/30일
 7) 월간총음주량*10gm(소주, 맥주 등 술 종류에 상관없이 1잔에 포함된 순수알코올함량)/음주일수

만점에 3.15점으로 주변에 있는 상사나 동료들이 대부분 술을 마시고 있으며 자신도 마셔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음주에 관한 사회적 압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 역할태도는 평균평점 2.86점으로 약간 개방적인 성 역할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음주자 비율은 67.7%이었으며 일인당 월간 총 음주량(GQF)은 43.6잔, 일일 평균 음주량은 1.4잔이었다. 음주자들이 일회 음주 시 마시는 양은 3.67잔이었으며 이를 순수알코올소비량으로 환산하면 36.7gm에 해당된다.⁴⁾

2. 응답자의 특성별 음주행동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월간 총 음주량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장경력에 따라 월간 총 음주량은 차이를 보였으나 종교와 문제음주가족력 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20대의 음주량이 가장 많았고 40대가 가장 낮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자가 (평균 60.0잔)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마시고 있었으며 기타(사별, 이혼 또는 별거)가 가장 적게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학력자가 가장 많이 마셨고 전문대졸업, 중졸이하 및 대졸이상의 순서이었다. 직장경력 별로는 1년-5년 미만 군이 가장 많았고 15년 이상이 가장 적었다.

직장의 조직특성별로 월간 총 음주량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월간 총 음주량은 직장의 조직특성 중 유일하게 근무시간에 따라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월간 총 음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 < 0.05$).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문관리직보다는 비전문기술직의 총 음주량이 많았으며 정규직 평사원이 가장 많이 마시고 있었다. 지휘통제하는 직원수는 11-50명인 응답자, 남자직원비율이 20-80%, 3개월에 1-2회 회식하는 경우가 각각의 해당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특성과 음주행동간의 Pearson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나 (표 생략)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사회·문화적 태도와 음주행동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음주기대와 주관적 음주규범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주관적 음주규범을 강하게 느낄수록 월간 총 음주량이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며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편이었다.

3.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월간 총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사회·문화적, 직업적 특성요인을 검정하기 위해 월간 총 음주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들에 따라 4개의 모델을 설정하였다. 모델1에서는 직무스트레스에 관련된 요인만을 투입하고 모델2에서는 직무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직무특성 및 조직특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모델3에서는 모델2에 개인에 관련된 특성을 추가 투입하고 여기에 사회·문

4) 음주량은 마시는 술의 종류와 측정단위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대한예방의학회 1993) 순수알코올 양을 계산하였다. 술 종류에 관계없이 각각의 술 한잔에 함유된 순수알코올 함량은 약 10gm으로 가정하였다.

<표 4> 월간 총 음주량(Log 변환값)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단위: 표준화회귀계수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직무스트레스	.105***	.072*	.027	-.019
직무특성				
의사 소통		-.010	.002	.008
업무 능력		.021	-.016	-.018
자율성 정도		-.042	-.003	-.019
업무 중요도		.037	.019	.018
업무 소외감		.054	.050	.025
조직특성				
일일근무시간		.073*	.025	.014
회식빈도 ¹⁾		.135***	.101***	.061*
부하직원수 ¹⁾		-.025	.022	-.007
직 위		.028	.070*	.066*
남자직원비율		.034	-.019	-.014
개인특성				
연령			-.326***	-.273***
혼인상태(기준집단:미혼)				
기혼			-.117**	-.110**
기타			-.014	-.017
학력			-.192***	-.205***
한달 용돈			.066	.044
종교 (기준집단:무교)				
기독교			-.144***	-.105***
천주교			.000	.000
불 교			.003	-.001
문제음주가족력			.006	-.012
직장 경력			-.007	-.001
사회·문화적 특성				
음주기대				.279***
주관적 음주규범				.186***
성역할태도				.037
R ²	.011***	.047***	.197***	.314***
R ² 변화량		.036***	.150***	.117***

주) ¹⁾루트값 *P<0.05 **p<0.01 *** p<0.001

화적 특성을 첨가한 것이 모델4이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일부 독립변수들의 값을 변환하였다. 종속변수는 원래의 값에 log값을 취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위 값들의 변화가능성을 낮추고 일부 극한값의 영향을 적게 함으로써 선형효과가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회귀분석 가정 충족을 위해 적용하는 방법이다(Chatterjee et al., 2000).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회식빈도, 직원수의 원래 값을 제공된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표 4)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월간 총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모델1)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며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월간 총 음주량도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 모델의 설명력은 1.1%로 낮은 편이었다($p < 0.001$). 모델2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일일근무시간, 회식빈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이었다. 이들 독립변수 변화가 종속변수 변화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7%이었다($p < 0.001$). 이중 직무스트레스 이외에 추가로 투입된 변수들인 직무특성과 조직특성이 부가적으로 설명한 설명력은 3.6%이었다($p < 0.001$). 모델2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인 직무스트레스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월간 총 음주량이 증가하였고, 일일근무시간 및 회식빈도의 경우에도 이들 변수의 값이 증가하면 월간 총 음주량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모델3에서는 직장의 조직특성 중 회식빈도와 직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이었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 기혼, 학력, 기독교가 의미 있는 변수이었다. 모델4의 설명력은 31.4%이었고($p < 0.001$) 사회·문화적 변수들의 부가적 설명력은 11.7%이었다($p < 0.001$). 모델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수는 회식빈도, 직위, 연령, 기혼, 학력, 기독교, 음주기대, 주관적 음주규범이었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회식빈도가 증가할수록 직위가 높아질수록 월간 총 음주량은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증가할수록 월간 총 음주량은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또한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주관적 음주규범을 강하게 느낄수록 월간 총 음주량은 증가하였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했을 경우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기독교인의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월간 총 음주량이 적었다.

직업관련특성이 여성의 월간 총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직무스트레스, 일일근무시간 및 회식빈도가 월간 총 음주량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나 일일근무시간이 증가할수록 또는 회식빈도가 많을수록 월간 총 음주량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중 종속변수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회식빈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도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부가적으로 고려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모델3). 즉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의미를 상실하고 회식빈도와 직위만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했을 경우(모델4)에는 직장의 조직 특성 중 회식빈도와 직위만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이었고 직업관련 다른 특성들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직장여성의 음주행동은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 특히 직위나 업무의 성격과 자율성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ore et al., 2003).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직종을 전문관리직과 비

전문기술직으로 크게 구분하여 독립변수 각각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전문가, 사무직원을 전문관리직으로,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근로직을 비전문기술직으로 분류하였다.

<표 5>는 전문관리직만을 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모델1에서 볼 수 있듯이 직무스트레스가 월간 총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 모델의 적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모델2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업무능력 및 자율성 정도와 같은 직무특성과 일일근무시간이 월간 총 음주량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독립변수이었고 모델3에서는 업무능력, 자율성 정도, 연령, 기혼, 학력 및 기독교가 의미 있는 변수들이었다. 모델4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독립변수는 업무능력, 자율성 정도, 연령, 기혼, 학력, 기독교 및 주관적 음주규범이었다. 업무능력이나 자율성 정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월간 총 음주량이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연령이나 학력은 증가할수록 월간 총 음주량이 감소하였다. 기독교 신자라고 보고한 응답자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월간 총 음주량이 적었으며 기혼은 미혼에 비해 적었다. 주관적 음주규범 즉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크게 느낄수록 월간 총 음주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1.1%이었다($p < 0.001$).

비전문기술직만을 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델1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월간 총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나($p < 0.05$) 모델의 설명력은 낮았다. 모델2에서는 직무특성

요인 중 업무능력 과 업무소외감이, 직장의 조직특성 중 회식빈도가 각각 월간 총 음주량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들이었다. 모델3의 경우에는 직무특성 중 업무소외감만이 의미 있는 변수이었고 그 외 회식빈도, 직위, 연령, 학력, 기독교가 의미 있는 변수들이었다. 모델4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독립변수는 직위, 연령, 학력, 기독교, 음주기대 및 주관적 음주규범이었다. 직위가 높을수록 월간 총 음주량이 증가하였고, 연령이나 학력이 증가할수록 월간 총 음주량은 감소하였다. 기독교신자인 경우에 종교가 없다는 응답자에 비해 월간 총 음주량이 적었다.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주관적 음주규범을 강하게 느낄수록 월간 총 음주량은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전체적으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4.2%이었고 사회·문화적 특성 변수들의 부가적 설명력은 9.1%이었다($p < 0.001$).

전문관리직과 비전문기술직의 월간 총 음주량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비교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통제한 이후, 직업관련특성 변수 중, 전문관리직에서는 업무능력과 자율성 정도가 의미가 있었고 비전문기술직에서는 직위만이 월간 총 음주량을 결정하는 의미있는 변수이었다. 전문관리직의 경우 업무능력 및 업무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음주를 적게하는 양상이었고 비전문기술직에서는 직위가 올라갈수록 음주량이 증가하였다. 한편 음주기대가 높을수록 월간 총 음주량이 증가하는 관계는 비전문기술직에서만 관찰할 수 있었다. 주관적 음주규범은 양 직종 모두에서 월간 총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었다. 다른 직장동료들이 음주를 한다고 인식할수록 음주량이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표 5> 전문관리직을 대상으로 월간 총 음주량(Log 변환값)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단위: 표준화회귀계수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직무스트레스	.075	.071	.023	-.035
직무특성				
의사 소통		-.099*	-.081	-.050
업무 능력		-.123**	-.094*	-.081*
자율성 정도		-.125**	-.089*	-.079*
업무 중요도		.032	.045	.043
업무 소외감		-.063	-.040	-.041
조직특성				
일일근무시간		.095*	.065	.046
회식 빈도 ¹⁾		.050	.056	.035
부하직원수 ¹⁾		.046	.074	.039
직 위		-.059	.029	.024
남자직원비율		.049	-.005	-.002
개인특성				
연령			-.188*	-.194*
혼인상태(기준집단:미혼)				
기혼			-.127*	-.123*
기타			.025	.007
학력			-.111*	-.124**
한달 용돈			.053	.038
종교 (기준집단:무교)				
기독교			-.117*	-.092*
천주교			-.024	-.011
불 교			.035	.025
문제음주가족력			-.038	-.050
직장 경력			-.049	.009
사회·문화적 특성				
음주기대				.283
주관적 음주규범				.194***
성역할태도				.072
R ²	.006	.066***	.185***	.311***
R ² 변화량		.060***	.119***	.126***

주) ¹⁾루트값 *P<0.05 ** p<0.01 *** p<0.001

<표 6> 비전문기술직만을 대상으로 월간 총 음주량(Log 변환값)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단위: 표준화회귀계수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직무스트레스	.115*	.042	.006	-.021
직무특성				
의사 소통		.052	.050	.042
업무 능력		.118*	.050	.034
자율성 정도		.015	.080	.040
업무 중요도		-.010	-.023	-.020
업무 소외감		.135**	.105*	.077
조직특성				
일일근무시간		.035	-.028	-.029
회식 빈도 ¹⁾		.162***	.115*	.082
부하직원수 ¹⁾		-.028	-.010	-.032
직 위		.087	.114*	.111*
남자직원비율		-.025	-.008	-.009
개인특성				
연령			-.391***	-.346***
혼인상태(기준집단:미혼)				
기혼			-.091	-.085
기타			-.029	-.024
학력			-.233***	-.226***
한달 용돈			.059	.044
종교 (기준집단:무교)				
기독교			-.176***	-.123**
천주교			.013	.008
불 교			-.026	-.021
문제음주가족력			.043	.022
직장 경력			.008	.009
사회·문화적 특성				
음주기대				.250***
주관적 음주규범				.171***
성역할태도				.000
R ²	.013***	.093***	.252***	.342***
R ² 변화량		.080***	.158***	.091***

주) ¹⁾루트값 *P<0.05 ** p<0.01 *** p<0.001

IV. 고 찰

본 연구는 직장여성의 음주행동과 직업관련 특성이 음주행동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것이다. 여성운동의 영향과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로 여성음주와 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관련 특성과 여성음주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Cooper et al., 1990). 직업관련 특성과 음주행동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과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이 매우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음주행동에 직업관련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Blum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직장여성 중 67.7%가 지난 한 달 동안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95년도 경남지역 20-59세까지의 성인여성의 음주율 53.7%(허은정 등, 2001), '99년 전국 성인여성의 음주율 54.9%(보건사회연구원, 1999)를 상회하는 것이나 남녀사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최승희 등, 2001)에서의 여성 월간 음주율 86.0%보다는 낮은 편이다. 제갈 정(2001)이 18세 이상 성인여성의 연간 음주자 비율을 전국 규모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71.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음주자 비율이 차

이가 나는 것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지역 및 조사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수도 있겠으나 음주율의 측정방법 내지는 측정도구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내 음주관련 조사연구에서는 음주자 비율이나 음주빈도 및 음주량을 정량화 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김광기 등, 2001) 조사자에 따라 다른 설문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음주율의 차이가 초래되었을 수 있다.

음주양상을 설명함에 있어 음주자의 비율이 외에 가장 중요한 지표들 중의 하나는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직장여성들의 음주량을 GQF(Graduated Quantity-Frequency)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직장여성의 월간 총 음주량은 43.6잔이었다. 이는 일일 평균 음주량 1.44잔에 해당되며 음주 시 평균 순수알코올소비량은 36.7gm으로 이는 맥주 2캔, 2홉 소주 반병정도에 해당된다. 이를 다시 WHO가 분류하는 알코올소비 위험수준별로 범주화⁵⁾하여 살펴보면, 음주자 중 41.8%는 낮은 위험수준(low risk level), 29.2%가 중간 위험수준(medium risk level), 29.0%가 높은 위험수준(high risk level)의 음주자이었다. 본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측정방법에 의한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타 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제갈 정(2001)의 연구에서 평소 주량을 3잔 이상으로 분류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4.1%로 본 연구보다 훨씬 높았으며 보건사회연구원(1999)의 연구결과 일회 평균 음주량이 2홉 소주 반병이상이라고 응답한 여성이 22.3%로 보고하고 있는

5) 음주 시 마시는 순수 알코올소비량을 기준으로 20gm이하는 낮은 위험수준, 21-40gm 이하는 중간 위험수준, 41-60gm은 높은 위험수준, 61gm이상은 최고 높은 위험수준 등으로 구분한다.

데 이는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직장 여성 중 건강에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음주를 하고 있는 응답자가 29.0%나 된다는 것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는 직업관련특성이 여성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월간 총 음주량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경우, 직업관련 특성만을 고려한다면 직무스트레스, 일일근무시간 및 회식빈도가 의미 있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직업관련 특성 이외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경우에는 직업관련특성 중 회식빈도와 직위만이 의미 있는 요인이었다. 직장에서의 회식이 음주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직위가 높을수록 월간 총 음주량은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회식빈도가 증가하면 월간 총 음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회식은 곧 집단수준에서의 음주를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할 때(한태선, 1998; 2000; 정문희, 2001),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이러한 경향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Shore, 1992). 직위에 따른 알코올소비 차이는 선행 연구(Moore et al., 2003; Roxburgh,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관리직이 하위직 보다 음주소비가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회식빈도를 통제 한 경우이므로 직위가 올라갈수록 음주소비가 많아지는 것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음주를 하게 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Roman et al., 2002).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전문관리직과 비전문기술직 간에는 달랐다. 직위가 올라갈수록 총 음주량이 증가하는 것은 비전문기술직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전문관리직에서는 다른 양상이었다. 전문관리직에서는 업무능력과 자율성 정도에 대한 인식도가 긍정적일수록 월간 총

음주량은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이는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Seeman et al., 1998).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수행능력이 있고 이를 자신의 자율에 의해 추진할 수 있게되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고 음주할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이 왜 전문관리직에서만 나타나고 비전문기술직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인구학적 및 음주에 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고려하지 않고 직업에 관련된 특성만을 고려한 회귀분석(모델 2)의 경우에는 업무능력과 총음주량과의 관계가 전문관리직과 비전문기술직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감을 위해 직장 여성이 음주를 하는 것은 직종에 따라 다양하다는 연구(Shore, 1992)와 일치한다. 직종에 따라 다양한 음주양상을 보이는 것 중의 한 이유는 남자 동료와의 관계 때문이다(Haavio-Mannila, 1991; Lennon, 1987; Kraft et al., 1993). 남자가 여자보다 알코올을 더 많이 자주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남성과 함께 일하는 직장여성의 경우 남성동료들과의 음주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알코올 소비가 많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남녀직원비율이 직장 여성의 음주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차이가 표본에 의한 차이인지 아니면 서구와 한국의 음주문화 또는 직장문화의 차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향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월간 총 음주량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음주기대였고 그 다음이 연령, 주관적 음주규범의 순서이었다. 연령을 제외하고 보면 직장여성의 음주양상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사회·문화적 특성요인들이며 이는 직업관련특성보다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절주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때에는 음주기대 및 주관적 음주규범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긍정적인 음주기대를 가질수록 또한 동료나 상사와 같은 직장내의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음주를 해야한다는 압력감을 많이 느낄수록 음주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술을 마신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음주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행동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의 여성지위의 향상으로 여성 음주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Wilsnack et al., 1992; Robbins et al., 1993), 성 역할태도가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되었으나 (Parker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는 음주행동이 더 이상 성 역할태도의 전통성과 개방성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직장여성의 67.7%가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보아도 음주가 개방적인 성 역할태도를 가진 일부의 여성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행동이 아닌 여성의 일상생활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월간 총 음주량을 결정하는 요인 중, 의미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기혼 및 기독교이었다. 연령과 학력은 증가할수록 월간 총 음주량이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며 이는 전문관리직이나 비전문기술직이나 같은 양상이었다. 기혼은 미혼보다 월간 총 음주량이 적었다. 이는 이전의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Shore, 1992; Wilsnack & Wilsnack, 1997).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음주를 적게 하는 이유는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Wilsnack & Wilsnack, 1997). 그러나 이혼, 별거 또는 사별과 같은 경우에는 미혼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혼과 별거와 같이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양상이 과음을 많이 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바(Robbins et al., 1993),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기독교 신자인 직장여성 음주자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직장여성 음주자 보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된 이후에 월간 총 음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가 음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적 믿음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할 경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직장여성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다른 태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성인여성 중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전체 여성을 모집단으로 하였지만 확률표본이 아닌 임의 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된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표본선정의 대표성을 유지하고자 모집단과 유사한 직종 및 업종별 비율대로 표본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분포가 연령별로 20-30대가 전체의 66.3%를 차지하였으며, 학력에서 46.8%가 고졸자였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41.4%였으며,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 59.3%로 미혼보다 많았다. 이러한 특성은 전국적인 여성근로자의 특성(노동부, 2001)과 비교해볼 때 대체로 유사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가 직장여성의 음주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의 모집단을 서울시로 한정하고 직종, 업종별 비례 층화 할당법으로 표본추출을 하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직장 여성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기가 여성 직장인의 정상적인 음주행동을 반영하는 시기로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7-8월은 직장인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직장이나 직무와 관련된 요인의 음주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월간 총 음주량 측정을 주관적 자가보고형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에 따라 기억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답오차가 개입될 수 있다. 넷째, 직업특성에 관련된 측정도구, 특히 직무특성이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들은 조직행동분야 연구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음주행동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음주가 스트레스나 불안을 감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점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히 직장여성의 고용안정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여 직장여성의 스트레스원(stressor)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월간 총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차원적이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이외의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들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누구와 어디에서 주로 술을 마시는 것과 관련된 음주상황에 관련된 변수가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는 바, 이를 포함시키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본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여성들의 음주행동을 설명하고 직업관련 특성이 이들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직장여성 1,000명으로부터 면접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지난 한달간 음주경험자 비율은 67.7% 이었으며, 일인당 월간 총 음주량은 43.6잔, 일일 평균 음주량은 1.4잔이었다. 또한 일회 음주 시 마시는 알코올 함량은 36.7gm으로서 이는 맥주 약 750CC(2캔), 소주 2홉 짜리 반병(3-4소주잔)에 해당되는 양이다. 건강에 위험이 큰 수준으로 음주하는 직장 여성도 29.0%나 되었다.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 직업관련 특성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었다. 직업관련 특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음주에 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함께 고려한 경우 직업관련특성은 회식빈도와 직위가 월간 총 음주량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었다. 전문관리직과 비전문기술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지는 않았다. 전문관리직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음주량이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비전문기술직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비전문기술직의 경우에는 직위가 높으면 음주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직장관련특성이 직장여성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른 양상이었다.

이러한 점이 직장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직업관련요인 중 회식빈도가 월간 총 음주량에 중요한 요인인 바, 전체적으로 회식빈도를 줄이거나 절주 또는 금주하는 회식문화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음주기대와 주관적 음주규범과 같은 사회·문화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직업관련 특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바, 이들을 고려하는 절주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직장여성용 절주프로그램에는 회식을 대신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음주기대를 약화시키는 내용과 과음하지 않는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규범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직업관련 특성과 여성음주와의 관련성을 국내 처음으로 확인한 연구이므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별히 직업관련 환경과 여성음주와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본 연구와는 다른 측정방법이나 분석 모델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문관리직과 비전문기술직만으로만 구분하고 있지만 이를 새롭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여성음주와 직업관련 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접수일자: 2003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2월 14일>

참고문헌

김광기 등. 알콜소비 및 음주관련 폐해 통계지표의 정보화. 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보고서, 2001.

김광기. 여성건강증진과 음주, 한국여성건강증진 연구회 편, 여성건강. 서울, 현문사, 2002:689-717.

김명순. 직업에 관한 특성이 여성의 음주행동양

상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영란. 대학생의 음주습관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1999;25(2):24-33.

김 훈. 음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업무 관련 특성 및 대응 행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노동부. 2000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1.

대한예방의학회. 건강통계 자료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연구, 1993.

류경희. 가족력 대처방식, 음주기대 및 동기가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매일경제신문. 업체 DB, 2001.

박종순. 대학생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000; 26(4):393-413.

신명식. 한국성인의 문제음주행태 관련요인 분석. 인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신행우.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이길홍, 권혜진. 여성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 및 간호중재. 한국의과학, 1987;19:331-338.

이성림, 김종규. 알코올중독자, 음주자 및 비음주자의 혈액성분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002;28(1):31-38.

이용식. 체육행정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이혜성. 한국인의 여성에 대한 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196-232.

정문희. 집단보건관리사업에서의 '절주'캠페인을 위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001, 27(3):209-216.

정승은. 미혼여성의 건강위험행위 예측모형.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제갈 정. 한국인의 음주실태와 정책대안. 한국의 음주문화와 알코올 문제 예방 및 치료·재활. 한국 음주문화 연구센터, 2001:3-40.

- 조 회. 한국대학생의 음주행위 예측모형 구축.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천성수, 이주열, 이용표 등. 대학사회의 절주홍보·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1;2(1):67-114.
- 최명숙, 임미영, 윤영미. 한국대학생의 음주행위 예측모형의 성별 비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002;32(1):77-88.
- 최승희, 김명, 김광기. 서울지역 사무직 근로자의 음주에 관한 행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1; 18(2):27-44
- 최은진. 청소년 음주문제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1;2(1):5-13.
- 최정명. 청소년의 흡연행위예측모형 구축.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199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02.
- 한태선. 음주의 사회문화적 의미: 공동체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한태선. 적정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000;26(4):383-392.
- 허은정, 김명순, 김광기. 일부 지역 여성의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1;15(2):202-215.
- Blum TC, Roman PM. Employment and drinking. edited by Wilsnack RW and Wilsnack SC. Gender and Alcohol, Individual and Social Perspectives, New Brunswick, NJ, Rutgers Center of Alcohol Studies, 1997:379-394.
- Cappell H, Greeley J. Alcohol and tension reduction: an update on research and theory. edited by Blane HT & Leonard KE.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Y, Guilford Press, 1987:15-54.
- Chatterjee S, Hadi AS, Price B. Regression Analysis by Examples. 3rd ed. N.Y, Wiley-Interscience, 2000:153-199.
- Clark WB & Hilton ME. Alcohol in America. N.Y., SUNY, 1991.
- Cooper ML, Russell M, Frone MR. Work stress and alcohol effects: a test of stress-induced drink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90; 31(Sep):260-276.
- Fishbein M. and Ajzen I.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0.
- Frone MR. Work stress and alcohol use. Alcohol Research and Health, 1999;23: 284-291.
- Greenberg E, Grunberg L. Work alienation and problem alcohol behavio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95;36: 83-102.
- Haavio-Mannila E. Impact of coworkers on female alcohol use, Contemporary Drug Problems 1991;18:597-627.
- Kenneth JS. Stress response dampening. edited by Blane HT & Leonard KE.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Y, The Guilford Press, 1987:227-269.
- Kraft JM, Blum TC, Martin TK, et al. Drinking patterns and the gender mix of occupations: evidence from a national survey of american workers. Journal of Substance Abuse, 1993;5:157-174.
- Lennon MC. Sex differences in distress: the impact of gender and work roles. Journal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87;28(Sep):290-305.
- Lennon MC. Women, work, and well-being: the importance of work conditio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94;35:235-247.

- Lindman RE, Stoholm BA, Lang AR. Expectations of alcohol-induced positive affect: a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Studies on Alcohol*, 2000;sep:681-687.
- Moore S, Grunberg, L, Greenberg, E. A longitudinal exploration of alcohol use and problems comparing managerial and nonmanagerial men and women, *Addictive Behavior* 2003;28:687-703.
- NIAAA. Are women more vulnerable to alcohol's effects? *Alcohol Alert*, No.46, 1999.
- NIAAA. Why do some people drink too much? the role of genetic and psychosocial influences. *Alcohol Research and Health*, 2000;24(1):17-26.
- Parker DA, Harford TC. Gender- role attitudes, job competition and alcohol consumption among women and men.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992;16(2):159-165.
- Plant M. *Women and Alcohol: Contemporary and Historical Perspectives*. N.Y.: Free Association, 1997.
- Ragland DR & Ames, GM., Curr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stress and alcohol consumption.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996;20(8):51A-53A
- Robbins CA, Martin SS. Gender, styles of deviance, and drinking problem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93; 34(12):302-321.
- Rohsenow DJ. Drinking habits and expectancies about alcohol's effects for self versus others. *Journal Clinical and Consulting Psychology*, 1983;51:752-756.
- Roman PM, Blum TC. The workplace and alcohol problem prevention. *Alcohol Research and Health*, 2002;26(1):49-57.
- Roxburgh S. Gender differences in work and well-being: effects of exposure and vulnerability. *Journal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96;37(sep):265-277.
- Seeman M, Seeman AZ, Budros A. Powerlessness, work and community; a longitudinal study of alienation and alcohol u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88;29(9):185-198.
- Shore ER. Drinking patterns and problems among women in paid employment,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1992;16(2):160-164.
- Shore ER, Pieri SA. Drinking behaviors of women in four occupational groups. *Women & Health*, 1992;19(4):55-60.
- Stewart RB, Li TK. The neurological of alcoholism in genetically selected rat models.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1997;21(2):169-176.
- Wilsnack RW and Wilsnack SC. Women, work and alcohol: failures of simple theori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992;16(2):172-179.
- Wilsnack RW and Wilsnack SC. *Gender and Alcohol, Individual and Social Perspectives*, Rutgers Center of Alcohol Studies, New Brunswick, New Jersey USA, 1997.
-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Guide for Monitoring Alcohol Consumption and Related Harm*, WHO, Geneva, 2000.

<ABSTRACT>

Effects of Job-related Characteristics on Alcohol Consumption among Female Workers in Korea

Myung-Soon Kim* · Kwang Kee Kim**

*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Gil College and Center for Alcohol Studies, Inje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Center for Alcohol Studies, Inj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job-related characteristics on alcohol consumption among female worker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 sample of 1,000 female workers by a stratified proportional quota sampling method derived from those who were working in Seoul. Drinking behavior pattern includes total amount of pure alcohol consumed during the last month (AC) measured by graduated quantity-frequency. Job-related characteristics (JRC) were measured by job-related stress, work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including length of working hours, number of times dining out together with workers per year, number of staff to supervise, employment status, occupational category, and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to male counterpart. Confounding variables include sociodemographic and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lcohol expectancy, subjective norm of drinking, and gender-role attitud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show that the variability of AC was accounted for by some JRC including number of times dining together and employment status, with confounding variables held constant.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AC and JRC varied across occupational categorie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terms of health policy for female workers and further study for female drinking behavior.

Key words : Alcohol Consumption, Female Worker, Job-Related Characteristics, Occupational Categories